모든 열방 주볼때 까지(2019년 6월 시온산이네 이야기)

지난 두달간 연일 44도를 넘는 불볕 더위를 은혜로 지났지만, 여전히 더운 38도의 여름을 살아가는 시온산이네가 동역자님께 안부를 전합니다. 싸왓디캅!

교단연합 청소년 수련회(youth camp)

태국 중부지역 BFC 교단 소속 청소년들이 매년마다 수련회를 갖습니다. 이 수련회를 저희는 1년간 준비합니다. 기도하며 리더쉽 훈련강의 코스를 여러번 가지면서 이 수련회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이 수련회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지만, 이때 세워진 조별 리더들이 대부분 주일학교 교사와 현지교회 리더들로 세워지기 때문에 저희의 중보대상은 청소년들과 그룹리더들, 두 대상을 품고 기도합니다.

올해는 미얀마 국경 지역인 메솟의 한 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200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함께 먹고 자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태국은 청소년 대학생 문화가 거의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놀이문화나 운동문화가 더운 날씨로 인해 더 열악합니다. 그렇다보니 아이들이 중학교만 가도 너무 이르게 성에 눈뜨고 마약등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렇게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인생 전반을 불행으로 이끕니다. (실제로 대학생때 이미 동거와 임신 출산을 경험한 경우가 충격적일만큼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수련회는 정말 의미있고 중요한 모임입니다. 올 유스캠프에 200여명의 태국 청소년들이 참석했습니다. 은혜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만나는 일은 언제나 설렙니다.

메솟은 34도 였어요. 성령의 바람은 뜨거웠지만 그렇게 마주 잡은 우리의 손에 와 닿는 산바람은, 고국의 여름을 닮았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온 피산루록은 연일 42도를 갱신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피서를 다녀온 것 마냥 시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태국의 다음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손 부탁드립니다. 🙂

은혜로 변화되는 곳, 땅끝

중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BFC 교단이 함께 모여 리더쉽 수양회를 딱에서 가졌습니다. 말하자면 딱은 이 중부지역의 가장 중심인 우리나라 군청 소재지 같은 지역입니다. WEC 타이필드의 본부도 이곳에 있어서 신입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태국도 바로 이 곳 입니다. 시온이 낳고 처음 살았던 고향같은 딱에 들려 친하게 지낸 이웃들도 만나고 저희가 살던 집에도 들렀습니다.

딱에 있는 이 타이필드 센터에서 신입 선교사들이 언어공부도 하고 문화도 배우는 곳인데 예전 센터로 렌트했던 건물이 원래는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알려져 아주 싸게 렌트를 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 아주 근사한 콘도 두채가 신축되어 있는겁니다! 게다가 저희 살았던 집과 옆집도 세련된 학원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세가 안나가서 집주인이 공실로 두던 곳인데 말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지나간 자리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취는 복음의 원리! 라끄라방 센터 옆 집도 마약상이 사는데 저희가 가서 앞 길도 청소하고 학생들도 드나들고 하니 동네분들이 정말 좋아들 하셨습니다. “아짠 싸왕(빛)이 오니 정말 싸왕(빛)이 왔어요!”라시며 반기셨던 이웃들이 참 많았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빛으로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개척된 현지교회들이 어떻게 믿음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무엇보다 다음세대를 위해 헌신할 리더들을 키워내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여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장로님의 믿음의 간증과 우리 모두의 뜨거운 기도로 리더쉽 수양회를 마치며 더위도 꺽을 수 없는 열정과 사랑을 다시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뉴비젼 라끄라방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심방하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그들안의 아픔과 눈물이 주님 앞에 녹아나는 것을 봅니다.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는 “괜찮습니다(마이뻰라이)”에 숨겨진, 그 깊은 갈망과 호소를 부모가 되어, 형님 누나가 되고 동생이 되어 듣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고단한 어깨를 안아주면서, 그분이 너의 삶을 인도하시리라고 힘주어 이야기 해주는 것으로 안타까운 심방을 마칩니다.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한가지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아파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해결되지않는 지지부진한 인생의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으며, 내일을 부질없이 희망해보지만 답이 없는 인생.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 삶에 있는 고단함을 나누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응답의 문으로 삼으실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때, 나의 강함과 부함이 아닌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받으시는 까닭입니다.

미미선교사가 한달 전에 고장난 문에 부딪혀 앞니 두개가 나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뿌리에 임팩션이 있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과도 많지 않은 시골이라 의사진료 받는데까지 한달이 걸렸는데, 그마저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며 그날 두시간 반 진료를 받고 10번의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만가지 생각이 듭니다. 의사 한번 만날래도 십만원이 우습게 드는 비싼 의료비에,그 비싼 임플란트가 뭔지도 낯설어 하는 이곳의 의료상황을 생각하면 고민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할게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때때로 제가 혼자 하는 금식기도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중보기도의 힘을 경험하며 기도를 부탁드리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인생이 아닙니다. 하물며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선교지가 아니겠지요. 지혜롭게 이 과정을 잘 지나며 해결점을 찾아 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실제적인 인생의 문제들로 눈물흘리는 성도들이 참 위로자이며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는 일

감사하게도 만나온 청년들 중에 세 명이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자매는 저희를 만나기 전부터 양육을 받아오다가 저희를 만나 그 마음을 더욱 정하게 되어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한 자매와 한 형제는 어떻게 사역자가 될 수 있는지를 상담해 온 상태입니다.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 한국에서의 상황과 많이 달라 한 명의 사역자가 서는데 정말 많은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격적, 상황적 여러 여건이 열려야만 가능하기에 무조건 그런 의사를 비친다고 당장 훈련을 시작하거나 도와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것이 주님이 주신 소명이 맞다면 잘 분별하고 선별하여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백명이 믿어 백명이 다 사역자가 된다고 해도 지나칠 것이 없는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뉴비전 핏사누록 교회 개척

5월 초에 센터에 에어컨을 달고 내부 시설을 정비하며 센터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 예약자가 밀려 새로 구입한 에어컨도 설치하는데 몇 주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새로 달았는데도 설치할 때 실수를 했는지 물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어 다시 a/s를 신청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느리게 진행이 되는 가장 더운 시기의 이 땅에서 무엇보다 조급한 맘을 버리고 그 흐름을 따라 걸어가는 일이 참 고단합니다.

나래수완 대학교는 시스템이 특이해서 아직 방학을 하지 않은 과도 있고 방학을 이미 한 과도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학교 주변은 낮에는 사람구경을 잘 못할 정도로 텅 비어 있다가 늦은 밤에만 다들 활동을 합니다. 이 시기를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열심을 내는 건 한국사람의 정서일뿐, 가장 더운 4월 5월의 태국 중부지역은 많은 곳이 문을 닫고 모든 시간이 마치 느리게 돌아가는 기분이 들만큼 더위로 인해 속도조절을 해야만 하는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맘으로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에어컨 사러 가서 직원과 사귀어 한글학교에 벌써 관심을 두고 연락을 합니다. 무쌩(길거리음식)파는 아저씨와 이웃 과일가게 아줌마도 자녀들을 언어학교에 보내고 싶어합니다. 이런 관심자들과의 교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의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팀사역, 헌신으로 이루어가는 연합

WEC 타이팀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을 전에 나누었습니다. 향후 한텀(4년)안에 여러 선배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기에 팀은 축소되고 그만큼 한 팀원이 감당해야 할 역할도 커졌습니다.

5월 16일에 수코타이에서 포럼데이가 있었습니다. 점심은 포틀럭으로 준비해 모여 아침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외엔 종일 회의와 기도회를 했습니다.

외국동료들과 함께 일한지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문화와 관점의 차이는 늘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달라진게 있다면 마냥 감탄하고 부러워 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저희가 가진 배경과 관점에 대해 충분히 부연하고 설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오히려 쉬운 부분입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관점을 파악하고 논지를 잡아내면서도 겸손함과 존중을 유지하며 내 의견을 관철 시키는 것. 그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섬기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될 때라야 가능한, 진정한 소통의 단계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 맞게 될 신입선교사들 훈련에 대한 것과 새로운 지역 교회개척,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일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사역이란 이렇게 단순히 같이 일을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팀이 함께 걸어가면서 자연스레 신입선교사들이 사역을 배우고 가이드를 받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선교지의 여러 안건을 의논하고 함께 고민합니다. 비록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교회개척을 하지만, 크고 작은 일을 함께 돕고 연합하여 사역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돕습니다.

선교사도 인간이기에 결국 이 모든 인간관계는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이해와 서로를 향한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오늘날의 팀 사역입니다. 선교사가 현지인을 위해 하는 사역보다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들간의 좋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더 가치있는 멘토링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팀 사역은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사역 못잖게 중요하고 선교의 바톤을 계속 이어주기 위해 아주 중요한 중보기도 영역입니다. WEC 태국팀의 연합과 헌신,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팀사역 포지션

2년전부터 김성환선교사는 단기사역자를 받아 필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단기사역자 슈퍼바이져를 맡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의 파송본부에서 메일을 받으면 그들과 여러 달에 걸쳐 스케줄을 잡고 준비를 시켜 태국에 오는 단기지원자를 맞습니다. 그들을 픽업하고 다른 시, 도의 팀들에 배치하는 일도 담당합니다. 짧게는 몇주, 길게는 몇달에 걸쳐 필드를 경험하는 지원자의 모든 일정도 성환선교사가 짭니다. 그렇게 지원자가 귀국하면 평가를 하고 선교사 후보생으로서의 역량을 파송본부와 상의 하는 일까지가 이 직분의 역할입니다.

이번 4월에 스위스에서 한 가족이 한달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부분의 서양 선교사들은 이렇게 필드를 단기로 왔다가 다시 장기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태국팀 5명의 선교사가 단기경험자 출신) 지혜를 주셔서 사역과 병행해야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미미 선교사는 현재 MK케어 담당으로 섬기고 있는데 다른 역할을 하나 더 제안을 받은 상태라 기도중입니다. 섬기고 싶은 맘은 크지만 사역과 이런 역할들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선교지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동기는 오직 헌신과 섬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혜주셔서 모든 것을 조화롭게, 또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시온산 학교 전학

아이들이 새 학교로 전학을 하던 날, 입학때 보다도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즌인 3개월 여름방학에 예전 학교 친구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전학을 해야 한다는 걸 힘들어 했었기에 전학하던 첫날 엄마아빠의 기도는 길었습니다.

첫날 아이들은 더위를 먹어 종일 두통에 시달렸고 시력이 안 좋은 시온이 자리배정이 잘못되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등록금 내러가고 이것저것 처리하러 부르기는 엄청 부르더니 정작 교복은 등교하고 1달이 지나야 나온다는 말에, 시온산은 뭘 입어야 하나 고민입니다. 태국 시골학교의 실제를 접한 밤, 엄마 아빠의 기도는 더욱 길어졌습니다.

둘째 날, 시온이가 조그만 백을 하나 들고 들어옵니다. 시온이 보조백이 사제(?)라 선생님이 사용을 못하게 해서 반에서 친해진 친구가 사주었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반장선거를 했는데 자기가 2명 중 1명의 후보가 되어 투표를 했더니 그 친구가 14표로 반장이 되고 자기는 10표로 낙선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덧붙이는 명랑한 김시온양입니다.“만난지 이틀 지났는데 후보로 뽑히고 10명이나를 뽑았다는 건 대단하지않아?”^^

김산이는 잔뜩 주눅이 들어서는 그 큰눈을 더 크게 껌뻑거리며 친구들 맨 뒤에 서기에 안쓰러워 50밧을 용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김산이 어찌 알았는지 그 50밧으로 매점에서 바코드를 사고 충전을 해서 누나 과자 사주고 자기도 사먹고 아주 기마이(!)를 제대로 썼습니다.

아이들 학교 점심에 숟가락 포크를 첫날 매점에서 각자 사야했는데, 산이도 반 친구가 자기걸 사 주었다며 자랑스레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누나 반장선거 이야기를 듣더니 “왜 내 친구들은 나를 안 뽑았을까...?”하며 저녁내내 울상입니다. ^^

아이들은 이렇게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잡아가면(!) 엄마 아빠는 자유방학 시작이어야 하는데 저희 인생에 그런건 없습니다. 아이들 현지학교에 보내놓고 기도와 살피는 일로 하루가 짧습니다. 더위덕분에 엄청난 에너지로 먹어대는 아이들 밥해대기도 고단해지구요.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를 좋아하고 친구들을 금새 사귀어서 넘 감사합니다. 잘 적응해주고 행복하게 커주는 시온산은 모두 이모 삼촌 동역자님의 기도덕분에 자랍니다. 고맙습니다. 꾸벅 🙂

골방에서 열방으로

1.농쪽교회: 낫전도사님과 잉 사모님께 지혜주셔서 성도들을 잘 살피고 건강한 교제와 제자화가 이루어지도록. 자녀들 지혜와 건강위해

2.롬끌라오교회: 교회의 주축이 되었던 쿤퍼쿤메 가정과 피스네 가족이 생계문제로, 라용으로 일하러 가게 되고, 그로 인해 주일날 차가 없어 교회에 출석을 못하고 있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직업이 구해져서 믿음생활 지켜갈 수 있도록. 루완야이 목사님의 건강과 마음의 강건함위해

3.핏사누록교회: 교회건물을 이사하고 새롭게 정착하는 성도들이 성령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4.뉴비젼 라끄라방교회: 시험기간을 맞은 대학생들과 앞으로 취업과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졸업년차 학생들에게 기도를 통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경기가 좋지않아 성도들의 가게가 힘든데 이런 상황가운데서도 더욱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5.뉴비젼 핏사누록 센터 및 교회개척: 5월초부터 실내를 보수하고 문을 연 뉴비젼 언어학교에 많은 현지 이웃들과 청년들이 찾아오고 복음전파의 기회로 쓰이는 복음센터가 되도록.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이곳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제자삼을 수 있도록

6.일상과 학교생활: 아직 날이 많이 더워 야외활동을 자주 하는 학교에서 시온산이 더위때문에 두통에 시달리는데 건강 지켜주시길 /기도덕분에 집근처 나이트클럽의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소음으로 인해 새벽1시에나 잠들수 있고 새벽부터 일어나야 하는 상황때문에 사역에도 지장을 주는데 나이트클럽이 완전히 문을 닫을 수 있도록

7.건강: 미미선교사가 고장난 문에 부딪혀 앞니 두개가 나가는 사고를 당했는데,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몇달을 기다려야 하고 치료방법도 80-90년대 식이라 치료과정이 쉽지않은데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임시 치료를 받은 뒤 안식월에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하고 현지 치과에서 임시 치료만 받고 있는데 잘 치료받고 안식월까지 사역에 지장없이 회복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